

2022년 10월 23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사랑하는 주 하나님.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주시는 복된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바이러스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욱 더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성도가 굳게 서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사도행전 13:42-43

42.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니라.
As they went out, the people begged that these things might be told them the next Sabbath.
43.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And after the meeting of the synagogue broke up, many Jews and the devout converts to Judaism followed Paul and Barnabas, who, as they spoke with them, urged them to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뚜렷하게 그 흔적(sign)이 있습니다. 모세(Moses)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에서 놋뱀(bronze serpent)을 들었지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그 놋뱀을 뱉으로써 살았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써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어 영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설교 중에 증거 한 것은 “십자가 구원”입니다. 설교 후에도 당부한 것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설교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Continue in the grace of God!)고 권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이 증거 하는 그대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날마다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입니다.

SPR:

광야의 이스라엘이 작자의 자리를 떠나(Separation) 놋뱀이 매달린 장대 앞으로 나아간(Placement)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받은 것처럼(Rest)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애비뉴 양로병원(Avenues Nursing Home) 성경공부 때 직원 합하여 11명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감사와 찬송 중에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서로 나누는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죄인들로부터 벗어나(S),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곁에 뿌리 내린(P) 성도의 모임이었습니다.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었습니다(R).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성도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Working together with him, then, we appeal to you not to receive the grace of God in vain. For he says, “In a favorable time I listened to you, and in a day of salvation I have helped you.” Behold, now is the favor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6:1-2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피 흘려 구속하셨습니다. 이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그 큰 가치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큼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믿는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We are treated as impostors, and yet are true. As unknown, and yet well known. As dying, and behold, we live. As punished, and yet not killed. 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As having nothing, yet possessing everything.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6:8c-10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속이는 행위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 하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1.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유명합니다.
2.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3.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므로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4.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므로 가난한 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써 많은 사람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써 부요하게 합니다.
5.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역설” (paradox)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로 보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역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야 가는 나라입니다. 버릴 때 얻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 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Behold, now is the favor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6:2b

세상은 교회를 부정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핍박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God is in the midst of her. She shall not be moved. God will help her when morning dawns.

시편 Psalm 46:5

이러므로 교회는 핍박을 당하나, 교회는 강건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I know your tribulation and your poverty. But you are rich.
요한계시록 Revelation 2:9a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머나(Smyrna)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입니다. 서머나교회는 환난(tribulation)이 있고 궁핍(poverty)합니다. 곧 쓰러지고 말 것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이것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 교회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정확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으로써, 서머나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 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Show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As each has received a gift, use it to serve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of God's varied grace.
베드로전서 1 Peter 4:9-10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만 준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땅에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서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
전도서 Ecclesiastes 11:1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성도의 삶에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Which has come to you, as indeed in the whole world it is bearing fruit and increasing—as it also does among you, since the day you heard it and understood the grace of God in truth.

골로새서 Colossians 1:6

하나님의 은혜를 깨다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의하셨고, 명령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직각삼각형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독교인 수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직각삼각형이라고 주장해도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내는 책임자가 어떤 각 하나에 그 “직각 기호”를 붙이면 그것은 벌써 직각삼각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것을 증거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골로새서 Colossians 1:20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And you, who once were alienated and hostile in mind, doing evil deeds, he has now reconciled in his body of flesh by his death, in order to present you holy and blameless and above reproach before him.
골로새서 Colossians 1:21-22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첫 설교를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께 이르러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약속입니다.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증거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들은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기준을 따라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돕는 것입니다.

죄인 중의 괴수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써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를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거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밀레도(Miletus)에서 만나 에베소(Ephesus)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것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And now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사도행전 Acts 20:32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바울이 떠난 중에, 사나운 이리(fierce wolves)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그러진 말을 할지라도(speaking twisted things), 에베소교회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거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당부한 그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복 있는 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히브리서 Hebrews 4:16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죄 씻음을 받고 구원 받은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 (the throne of grace)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ward me was not in vain.
On the contrary, I worked harder than any of them, though it was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5:10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으로 죽어도 수도 없이
죽었을 우리가 앞으로 거룩한 천국으로 나아갈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히브리서 Hebrews 4:16

존 뉴턴(John Newton, 1725-1807)은 이전에 그는 대서양 노예무역에 관여했습니다. 1748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파선되어 죽을 뻔 했다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무역을 계속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도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프게도

은혜를 헛되게 받은 것입니다.

1.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성소 맨 안쪽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윗면이 은혜의 자리(시은소, seat of grace)입니다.

2. 은혜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 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창세기 Genesis 12:1c

3. 은혜의 자리는 “주님 동행의 자리” 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4. 은혜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5. 은혜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Behold, now is the favor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6:2b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써 그를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존 뉴턴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764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부르셨을 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1772년에 바로 이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때 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1779년에 그의 가사가 찬송가로 출판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찬송가 305장 중에서

우리가 이 찬송을 사랑하는 것은 존 뉴턴이 이 가사를 쓴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잃었던 생명 찾았습니다. 그 빛을 회복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사는 날 동안,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모든 영광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둔 세상을 떠나, 빛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